

육류도체등급제 시행 첫날부터 “뼈격”

취재 : 박진규

정부가 7월1일부터 축협서울공판장을 필두로 시범실 시키로 한 육류도체등급제가 준비와 홍보부족으로 시행 첫날부터 시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육류등급제 시행 첫날인 7월1일 오전현재 중매인들의 경매거부로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축작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경매가 안되고 있는 이유는 2분도체 배할로 고기에 흠집이 가고 뼈가 손상돼 정육점에서 돼지고기 구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여파로 한여름에 차위에서 돼지가 계류되고 있어 양돈 농가들의 피해도 늘고 있다.

돼지와 소의 도축시 육질 및 육량에 의한 객관적이고 통일된 기준 마련으로 육류유통의 개선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동시에 보호한다는 좋은 취지로 실시되는 이 육류등급제가 이 처럼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육류도체등급제 자체보다는 이의 실시를 위한 이분도체 유통에 따라 도매시장 상인과 중개인들이 육질에 흠집이 가는 등 도체의 변형에 따른 판매 저하와 가격부담으로 이분도체의 실시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육류도체등급제가 원활히 실시되기 위해서는 정부, 축협, 등급사, 생산자, 중매인, 도매상인 등이 조화를 이뤄 일을 추진해야 하는데, 각 단체마다 입장이 달라 이 처럼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실제 도매상인과 중매인의 경우 「육류도체등급제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이를 위해 돼지를 이분도체로 도축시 정확치 못한 배할로 목살, 갈비, 등심 등 주요부분의 모양이 크게 손상되고 흠집이 생기는 등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크게 떨어진다고 밝히고, 「또한 이분도체로의 도축시 도축수수료의 추가부담과 골발작업시 시간과 노력, 비용이 많이 들며, 운반량의 증가로 인한 위생적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육류등급제를 실시하려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해 실시도매시장의 피해가 없어야 하는데, 축협에서만 이분도체를 실시해 축협도매시장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축협에서의 이분도체 조기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육류등급제를 시행하는 한국축육개발협회 측은 「육류등급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이분도체로의 배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앞으로의 추세로 볼때 이분도체로 유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도매상인들의 인식이 부족한 데다 축협공판장의 배할톱 등 시설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확한 도체배할을 위해서는 좋은 성능의 배할톱이 필요하나 현재의 시설은 이분도체 실시전과 큰 차이가 없으며, 도축물량의 과다로 인한 문제점 등으로 상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축협은 「육류도체등급제가 소비자에게는 좋은 고기를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품질에 따른 가격형성으로 사육의욕을 높일 수 있는 만큼 꼭 실시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현재 이같은 문제는 시행초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서로 노력해 나가면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생산자들은 「경매가격인 중매인들의 담합에 의해 너무 싼값에 경매되는 등 생산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준비철회와 시정으로 이 제도의 조기정착을 바라고 있다.

현재 축협 서울공판장에서는 지난 6월 26일부터 21명의 등급사들이 육류도체등급제를 예비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26일 300두, 27일 800두, 29일 2,600두를 이분도체로 도축했으나 지난 30일 전체 경락두수가 500두로 평상시의 3,000두에 비해 크게 줄어들어 생산자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으로 이 육류도체등급제가 좋은 취지로 시행되는 만큼, 이의 실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조기정착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